

양림동-ACC-동명동 연결 관광명소화 논의

姜시장,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39번째 '정책소풍' 양림권역 관광활성화 방안 등 현장 의견수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사직공원 전망대에서 39번째 '정책소풍'을 열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정책소풍은 광주시가 양림동-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동명동 일대를 관광벨트로 묶어 관광명소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소풍에는 강기정 시장, 최홍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문희성 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 정성규 도시문화집단CS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양림동 근대문화자산을 활용하고 현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동명동

을 연결해 광주만의 매력 있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림동 일원은 유진벨, 오웬 등을 비롯한 서양인 선교사들이 모여 교회·학교·병원 등을 개설하는 등 기독교 복음전파의 터전으로 불린다.

또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가 결합된 한옥과 서양식 건물, 선교문화 유적지, 400년 노거수 호랑가시나무 등 전통 문화재가 보존돼 있는 근대역사문화마을이자 이색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센병·결핵 치유 및 빈민구제 공동체 등을 통한 희생과 나눔의 상징이자 근대정신 문화를 보급한 선교사들의 묘역은 전 세계에서 유



지난 10일 오후 남구 사직공원전망대에서 열린 '제39회 정책소풍 간담회'를 마친 강기정 광주시장이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사업 관련, 선교사 묘역 등을 답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일한 집단묘역으로 기독교순례 투어 등 활발히 진행돼 명소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류재한 전남대 교수는 "양림동의 산재한 관광자원을 동명동 카페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연결해 210

만명의 관광객이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벨트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강 시장과 참석자들은 수요응답형 이동서비스(DRT)인 광주투어 버스를 시범 탑승하고 선교사 묘역 등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살펴봤다.

수요응답형 이동서비스는 승객의 호출에 따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며 오는 23일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근대문화의 산실인 양림권역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물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예술·역사 자원을 집중시켜 광주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지역 특색 살린 관광디저트 개발

광주시, 간식 개발자내달 2일까지 공모
광주시는 11일 "광주관광공사와 함께 맛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 음료, 선물용 간식 등 개발을 위한 '광주 대표 관광디저트 개발 사업'을 오는 8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상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제작부터 포장 패키지,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까지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관광 디저트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3개 사안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1천만원의 개발 지원금과 광주김치축제 등 지역축제는 물론, 관광 홍보를 위한 팝업스토어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판로 개척과 제품 홍보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승구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광주의 맛과 스토리를 담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객 확대와 함께 여행자들의 소비 지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전남도,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 지원체계 구축

24시간 상담 전화 가동...지역 상담기관 '성모의집' 운영

전남도가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산부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는다. 성모의 집은 출산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호출산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 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이제는 출산·양육 공적 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및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한 오는 31일까지 1개월 연장

전남도는 11일 "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시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 지급 여부 판단 기준이 전년에서 당해 연도로 시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50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인,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수령액은 64만원이며 나머지 16만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어선원으로 승선해 6개월 이상 근무를 제공한 어업인에게 지원되며 지원액은 2023년보다 10만원 늘어난 130만원을 지급한다. /양시원기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확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예산 소진시까지
전남도는 11일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적기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6천

만원(기준 3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2024년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이 차감되며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초 9월 30일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됐다. 온라인 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양시원기자

전남 65세 이상 인구 26.67%...전국 최고

전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1천만명 돌파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26만9천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천682명, 여자는 557만2천380명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천68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 인구는 448만9천828명, 비수도권은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5.35%), 강원(24.72%), 전북(24.68%), 부산(23.38%), 충남(21.80%), 충북(21.42%), 경남(21.25%), 대구(20.26%)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 11.32%로, 서울은 18.96%였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멋진 바닷가 해안도로에 접한 소액투자매물
신안군 압해읍 매화리산261외4필지 13,000㎡
평당3만원 총가 1억2,800

곡성 국도변 계획관리등 과수원 70,000㎡
체리, 단감나무농장, 전시,수도,관리사있음
광주에서20분대 전원마을,공장등 최적
급매 14억7,000(조정가)

월세많은(110%)돈당이 부동산
동신대역 대지3,467㎡ 원룸건물3동,관리1동
(1층점포2칸,2층아파트형 주택150㎡주인거주)
2023,6월을수리 급처분 13억5,000
(현재 보3,000 월1,460만원 받고있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를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